

‘소년 김연아’ 차준환 피겨 새 역사



피겨 기대주 차준환(휘문중)이 쇼트프로그램에서의 부진을 지우고 10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프리스케이팅에서 153.70점을 받아 종합점수 225.55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전국남녀 회장배 피겨스케이팅 랭킹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동메달...남자 피겨 첫 쾌거

쿼드러플 살코 등 필살기로 당찬 연기...평창 기대감

‘남자 김연아’ 차준환(휘문중)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처음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 남자 선수가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입상한 것은 차준환이 처음이다.

차준환은 지난 10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치러진 2016-2017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0.06점, 예술점수(PCS) 74.64점, 감점 1을 합쳐 153.70점을 얻었다. 이를 전 쇼트프로그램에서 71.85점을 얻은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쳐 총점 225.55점을 기록하며 드미트리 알리에프(러시아·240.07점), 알렉산더 사마린(러시아·236.52점)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자신의 역대 최고점인 239.47점에는 13.92점이나 적은 점수였지만 차준환은 처음 나선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당당히 동메달을 목에 걸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기대주’로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특히 동메달을 차지한 차준환은 ‘피겨 칸’ 김연아(2005~2006시즌 우승) 이후 11년 만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메달을 따내는 기쁨을 맛봤다. 더불어 한국 남자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리스트가 됐다.

쇼트프로그램에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이어진 한 차례 점프실수가 아쉬움을 남긴 경기였다.

6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은반에 오른 차준환은 쇼트프로그램에서 실수했던 첫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

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30점)를 깔끔하게 뛰어 수행점수(GOE)를 1.40점이나 얻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차준환은 필살기로 준비한 두 번째 점프인 쿼드러플 살코(공중 4회전·기본점 10.50점)도 완벽하게 뛰어 GOE를 무려 2점이나 챙기며 순항했다. 트리플 악셀(기본점 8.50점)에서도 0.71점의 가산점을 챙긴 차준환은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 3으로 처리하고 체인인 시트 스핀은 레벨 4로 마무리했다.

연기 시간의 절반을 넘으면서 점프 연기의 기본점에 10%의 가산점을 주는 구간을 맞아 차준환은 트리플 악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까지 3연속 점프에서 ‘가산점 행진’을 이어갔다.

실수 없는 ‘클린 연기’가 기대되는 순간 실수가 나왔다. 트리플 플립-싱글 루프-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를 시도하던 차준환은 첫 번째 점프의 착지에 실패하며 엉덩방아를 찧고 후속 점프를 이어가지 못했다. 엉덩방아에 따른 감점 1과 더불어 GOE도 2.10점이나 깎였다. 하지만 차준환은 스텝 시퀀스(레벨 3)에 이러 트리플 루프를 성공해 가산점 1.10점을 챙긴 뒤 콤비네이션 점프로 동메달 연기를 마쳤다.

차준환은 경기 후 ISU와 인터뷰에서 “쇼트프로그램 연기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쇼트는 쇼트이고, 프리는 프리다”며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잊고 프리스케이팅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몇 가지 실수가 나왔지만 만족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빙속 김보름 매스스타트 우승...이승훈 銀

한국 여자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김보름(강원도청)이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4차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우승하며 시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보름은 11일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매스스타트에서 8분 31초7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이린 쇼우턴(네덜란드·8분31초82)을 0.09초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김보름은 이번 시즌 4차례 월드컵 시리즈에서 모두 메달을 따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보름은 2차 대회에서 우승했고, 3차 대회 동메달에 이어 이번 4차 대회에서 또다시 ‘금빛 수확’에 성공하며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확보했다. 김보름은 이번 시즌 월드컵 랭킹포인트 340점을 쌓아 매스스타트 월드컵 랭킹 1위였던 이바니 불롱맹(랭킹 포인트 308점)을 2위로 끌어내리고 선

두로 올라섰다. 함께 출전한 박지우(의정부여고)는 8분 41초67로 22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부 매스스타트에 나선 이승훈(대한항공)은 0.34초 차로 준우승했다.

이승훈은 이날 남자부 매스스타트에서 8분05초9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미국의 조이 탠티어(8분05초60)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은메달로 이승훈은 월드컵 3차 대회 동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포디움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랭킹포인트 80점을 추가한 이승훈은 이번 시즌 매스스타트에서 랭킹포인트 총점 262로 1위 자리를 이어갔다. 2위인 안드레아 지오반니니(190점)와는 72점 차다.

이승훈은 이번 시즌 4차례 월드컵에서 매스스타트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확보하며 매스스타트의 최강자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양현종 잔류 의사...KIA 대권도전 청신호

“결맞은 대우 기대”...김주찬 수술 후 재활도 순조



‘호랑이 군단’의 2017 대권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운드 핵심 양현종이 KIA 잔류 의사를 밝혔고, ‘주장 내정자’ 김주찬의 재활도 순조롭다.

지난 10일 KIA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외야수 김다원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비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 결혼식장을 찾아 ‘사랑방’을 열었다.

이날 선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화제의 선수는 단연 양현종이었다.

지난 9일 일본 요코하마행에 대한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양현종의 거취

는 팬들은 물론 선수들에게도 큰 관심이 됐다. 하지만 10일 양현종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잔류’의사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결혼식장을 찾은 양현종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KIA에 남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구단의 구체적인 답변과 이에 결맞은 대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타 이거즈맨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두·타의 불균형으로 고민하고 있던 KIA에는 희소식이다. KIA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타격 3관왕’ 최형우에 1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안겨주면서 빨간 유니폼을 입혔다. 앞서 팀의 4번 타자로 꾸준

하게 역할을 해줬던 나지완도 4년 40억에 잔류시키면서 초호화 타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마운드는 내년 시즌 대권 도전의 걸림돌로 꼽혔다. ‘특급 외야인’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잔류’의사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좌완 팻 던으로 선발 한자리를 채웠지만 한국에서의 첫 시즌인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 선발 후보 윤석민은 오른쪽 어깨 아웃라인 뼈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전반기 공백이 불가피하다. 김광수·최영필·임창용 등 베테랑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불펜의 변수도 많았다. 올 시즌 200이닝을 책임진 양현종이 선발 한자리를 채워준다면 KIA의 마운드 계산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시즌이 끝난 후 수술 소식으로 우려를

샀던 김주찬도 ‘이상무’다.

김주찬은 지난 11월21일 왼쪽 허벅지 지방층 제거수술을 받았다. 상당히 큰 종양을 제거하느라 입원 치료와 함께 목발을 짚고 다녔던 김주찬은 “몸이 많이 좋아졌다”며 결혼식장에 목발 없이 등장했다.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들을 갈아치운 김주찬은 골든 글러브까지 노리고 있는 등 KIA 타선의 해결사다. 내년 시즌에는 선수단을 이끄는 역할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김기태 감독이 ‘주장’으로 점찍어두면서 선수들의 회의와 함께 김주찬이 내년 시즌 이범호의 자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김주찬의 건강은 성적뿐만 아니라 선수단 분위기에도 중요하다.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한 김주찬은 후배들의 근황을 챙기는 등 ‘주장 내정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김주찬을 앞세운 KIA가 토종 에이스 양현종을 품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